

buddhanews.com

살아 있을 때 이 마음도리를 꼭 배워야

25면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먹고, 이 소립니다. 입을 해도 하는 사이 없이 입을 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먹어도 잡아먹은 사이가 없이 잡아먹고, 이럴 줄 알아야 소 무명을 거들 줄 알고 소를 환토를 시켜서 인간으로 화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약만 찾는다고 한다면 물질로다가 치우쳐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죠. 아이, 생각을 해 보세요. 형성시킨 것도 안에서 형성시켰고, 지금 작용을 하고 나가는 것도 안에서 작용을 하고 나가고 나를 움직여주게 하는데, 한쪽만 굳어져도 육신이 쓰러지고 송장이 되는데 탄 데로 자꾸 마음을 뒤 보세요. 어떤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해 놓고 약을 먹고 이래도 못 믿으니가 통신이 되질 않는 때가 많은데...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약이 약이 아니고 그냥 영양으로써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밥도 약이 아닙니까? 밥을 약이라고 안 먹습니까? 밥은 항상 먹는 거니까 그냥 그저 밥이라고 하는 약이란 소리는 안 하죠. 영. 그런데 그것도 약이예요. 먹어야 사니까요. 물도 약이고 모두가 약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약이 아니고 이거는 약입니까? 내가 몸에 좋아서 먹는다면 바로 그것도 약 아닌 약이죠. 그게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마음으로, '아이구, 내가 약을 먹으면 안 낫겠지. 약을 먹으면 뭐 더하겠지. 무슨 이거를 이력하면 안 되지, 되지.' 그냥 논란이 벌어지면서...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이젠 떠나야 할 수 없는 주인공 자기 뿌리예요. 잘되든지 못되든지, 안된다 된다는 떠나서 이거는 떠나야 할 수 없는 뿌리예요. 자기 영원한 뿌리, 불씨 말입니다. '나는 주인공 공을 찾아야 안되더라.' 이런 사람은 벌써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예요. 자기가 형성된 자체가 바로 주인공 때문이 아니니까? 소가 있으니까 달구지가 있듯이 말입니다. 소가 없으면 달구지도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질문자(3남):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가르침 잘 받았습시다.

다음은 '세존 유산 범찰'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한때 부처님이 사부대중을 거느리시고 어느 산을 지나가시다가 한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좋은 명당이니 이곳에 큰 범찰을 하나 지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니 제석천왕이 앞에 나타나서 풀 한 포기 땅에 꽂고는 '범찰이 다 지어졌습니다.' 하니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셨다고 합니다.

웃으신 뜻이 무엇인지 또 제석천왕은 무슨 뜻으로 땅에 풀 한 포기를 꽂았는지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제석천왕의 입기량이 벽지불의 경지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경지인지, 저희들이 공

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부처님이 여기다 풀을 짓겠다 한 것도 그놈이 한 것이고, 제석천왕이 풀 한 포기 꽂은 것도 그놈이요, 사찰을 지은 것도 바로 그놈이요, 웃은 것도 그놈입니다. 다른 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 풀 한 포기 땅에 꽂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뭐가 풀 꽂았다고 그랬죠?

질문자(3남): 풀 한 포기를 땅에 꽂고는 '범찰이 다 지어졌습니다.'

큰스님: 아니요. 그 꽃기 전에 이미 말입니다.

질문자(3남): 아, 제석천왕이...

큰스님: 예, 제석천왕! 입에서 나오면서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제석천왕이라는 것은, 내 비유를 하겠는데, 그러면 선생님 물 안에 선생님이 많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제석천왕이 아니니까? 혼자 사찰을 짓는 게 아니죠? 사과 하나를 잡셔서 혼자 먹지 않죠? 여러 명이 먹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 그 일체 중생의 마음이 한데 합쳐진 거를 제석천왕이라고 합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나도 얼마나 많습니까? 추억길 광년을 내려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이 인간으로 화했다는 걸 알고 싶으면 내 속을 들여다봐라 이겁니다. 증명서가 바로 여러분 몸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도리를 낚히면서 알면서 이렇게 해야 어디 가든지 서슴없이 짚고서 맛을 보고 먹고, '아! 참 맛 좋고 시원하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먹고도 그 씨는 되어서 이듬해 또 먹어요. 그러니 아주 영원토록 먹는 거죠. 이 도리가 얼마나 광대하고 묘하고 영원한지 모를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요, 이 정신 세계의 마음을 못 배우면요, 영혼이 죽어서 말입니다, 죽어서 아휴! 자기 몸체가 있는 줄 알아야. 웃을 벗어두고 벗은 걸로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 래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가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또 귀신을 많고 짐승들이 많은 데는 잡아먹힐까 봐 못 가고 이렇게 넘어져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라.' 했고, 부처님께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저 언덕을 넘어서야 하느니라.' 하셨

죠. 그러니까 삼독을 어디서 빼내느냐? 그 모두, 지금 내가 작업하라는 대로 그렇게 관하고 모든 걸 용공로에 넣듯이 거기다 놓으시면 바로 삼독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독이 무너지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를 하나 건진다, 무명을 벗겨 준다 하더라도 그냥 소의 마음을 나와 돌이 아니게 딱 한 데 합치면 (양 손바닥을 서로 붙여 보시고)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형체가 없는 거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나로 돼 버리는 거죠. 나의 그 속을 거처서 바로 탄생이 된다 하려면, 깨내도 즐지도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 격이죠, 체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려서 뭘까 모르겠네요. 허허하...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바로 나고 드는 것이 없죠. 나고 드는 게 없이 내 마음이 항상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 화해 가지고 돌아가는 게 사무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쳐서 중용을 한다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소의 무명을 벗겨 줘

로 묶어 보아야 옳은 것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되는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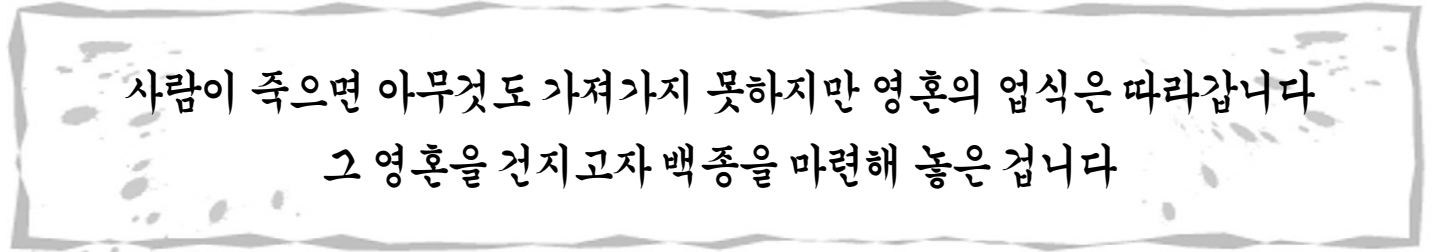
큰스님: 불씨는 우리 원소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는 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바탕이 바로 원소 자체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불씨라고 합시다. 불씨가 없으면 마음을 낼 수 없고 마음을 낼 수 없다면 육체가 움직여 리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삼합이 동일하게 하나가 돼서 지금 움직여주고 말을 하고 돌아가 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로 소를 타고 피리를 분다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지금 소를 타고 달구지를 끌고 다닙니다. 즉 말하자면 마부는 마음이요 바로 육신은 달구지요 소는 자기의 주인공, 바로 자기 조상입니다. 과거에 살던 자기, 현실에 사는 자기! 현실에 사는 자기는 달구지요 과거에 살던 자기는 바로 소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마부는 그 소를 쳐야지 달구지를 잘 끌고 가지 않느냐. 달구지에게다 모든 걸 다 실었는데 어떻게 달구지를 치느냐? 지금 기복으로 나가는 게 달구지를 치는 법이요, 바로 지금 마음법을 가르치는 게 소를 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삼합이 같이 동일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가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 '나' 이면서도 내가 공(空)해서 실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화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써 주인공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소는 과거 자기, 달구지는 현실 자기, 마부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써 그냥 무조건, 달구지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치는 마음이나, 잘 다스려서 잘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다스림이나 이런 게 있죠. 마부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바깥으로 빌어야겠습니까? '네 뿌리가 네 나무를 돕지 어느 누가 돕겠느냐.' 하고 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지금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찾는 건 제 뿌리를 제가 찾는 것이요, 바깥으로 찾는 건 남의 뿌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똑같죠. 대답을 엉뚱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입니다. 허허하...

질문자(3남):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니다. 천왕이거든요. 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땅에 꽂았느니라.' 하는 건 생각을 딱 거기다 집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음이 집중을 한 거죠. 한마음이 집중을 하니까 그 사찰이 그대로 지어졌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빙긋이 웃었다. 바로 그놈이 그놈이요, 그놈이 한 거니까 그냥 웃는 게 대답이죠, 뭐. 그러니까 혼자 웃은 게 아니죠, 또 그것도.

아,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지금 끄떡끄떡 하는 것도 혼자 끄떡거리십니까? 허허하... 아니,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습시다. 혼자 먹는 것도 없고, 혼자 입는 것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없고, 혼자 일하는 것도 없고, 혼자 사랑하는 것도 없고 전부 해야 할 수 없는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수 없는 자기가 그렇게 나투기 때문에 아버지모도 나투고, 또 남편모도 나투고, 또 혈모도 나투고, 아들모도 나투고, 사위모도 나투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투는데 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얼굴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을 한 몸에게다 수없이 해 놔죠. 손으로 천차만별의 일을 다 하죠. 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거 할 때 내 손이 했다고 할 수 없으리만큼 말입니다.

는데, 이 도리를 알고 보면 언덕을 넘어갈 것도 넘어갈 것도 없단 얘깁니다. 그 도리를 알면 산 부처요, 산 법신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산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직여줬다 하면 화신이에요, 그냥요.

질문자(3남): 다음 질문 여쭙겠습니다. 일찍이 한말 선사께서는 '탐진치 삼독만 떨리하면 상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된다.' 고 하셨습니다. 탐마 조사께서도 '진성(眞性)은 조금도 어두운 바 없이 항상 밝고 자재 하건만 중생이 스스로 생사고(生死苦)를 짓고 자기가 받는다. 마음 가운데 망념만 여의면 본래가 부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말 스님이나 탐마 조사와 같이 될 수가 있는지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그거 걱정 없어요. 삼세, 삼심, 삼독 이런 것이 과거, 미래로 인해서 현재!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죽는 순간과 나올 수 있는 순간의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미래가 오늘이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되면 바로 삼세가 되고 삼심이 되니까 삼심이 그 무명을 벗지 못하고 인과를 벗지 못하면 바로 삼독이 되는 거죠. 삼독은 바로 현실의 일심 속에 들어 있는 거

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금방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곁대기가 없어지는 거죠. 무명이 벗겨지고, 그 영혼은 내가 돼 가지고 바로 환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즉시 무명이 벗겨지는 거죠.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도살장에 가는 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해 줘요. 그러면 소의 머리를 방망이로 쳐도 아픈 걸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무명을 벗어오. 왜지든지 닭이든지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을 맺으세요. 악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과 선택을 쌓아서 바로 선의 씨로서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내가 고달플 때 모두 같이 해 주고 모두 같이 들어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스님. '한마음 요전'에 보면 '한마음 주인공'에 삼합이 나오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씨와 육신과 마음',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나온 자리를 모르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고 했는데, 이는 소와 달구지, 마부, 달구지를 탄 사람의 비유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달구지와 마부 삼합을 비유를 하겠습니까. 소와 달구지, 달구지와 달구지를 탄 사람, 달구지를 탄 사람과 소, 이 모두를 한 생명으

※위 법문은 1993년 9월 5일 범법제법회에 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교·범종



지장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작주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성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스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단돈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엠프 마이크 소리를 “확” 바꿔드립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엠프+마이크,스피커+마이크 등의 교체 및 재 셋팅]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 ◊ 소리공방 종목 ◊
- 사찰, 법당 엠프설치 일절
- 엠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예약접수기간 : 2009년 6월 ~ 8월 31일까지

(예약순으로 일주일에 법당 2곳만 설치해 드립니다)

해 당 지 역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 지역



▶高音質 무선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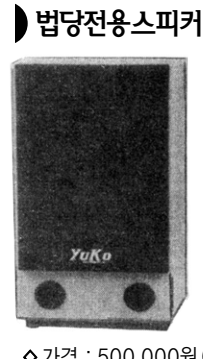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어떠한 엠프로 연결해도 뛰어난 출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탠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